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⑤	④	③	②	⑤
6	7	8	9	10
③	④	④	⑤	①
11	12	13	14	15
③	②	④	②	③
16	17	18	19	20
①	①	①	④	②
21	22	23	24	25
④	⑤	①	②	⑤
26	27	28	29	30
③	③	⑤	③	②
31	32	33	34	35
③	③	④	①	②
36	37	38	39	40
②	④	③	④	②
41	42	43	44	45
③	⑤	⑤	④	①
46	47	48	49	50
⑤	③	①	②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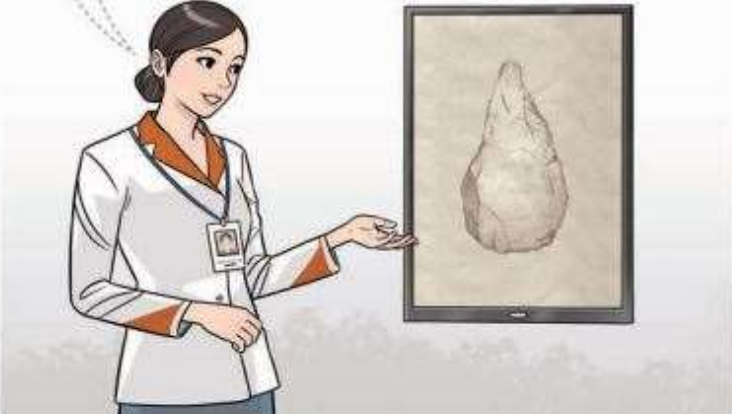
<1번 오답 해설>

- ②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③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든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④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거푸집: 금속을 녹여 부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다(용범). 주로 청동기, 철기 등 금속 도구의 제작에 쓰였다. 거푸집의 제작은 금속기를 대량으로 주조하였음을 뜻하며, 그러한 금속기의 대량 생산은 사회경제적으로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경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이 있었음을 뜻한다.

0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그림은 한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 등을 발견하고 그린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이 시대 동아시아에는 짝개 문화만 존재하고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는 모비우스(H. Movius)의 학설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①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다.
- ②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
- ③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 ④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 ⑤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정답> ⑤

'이 그림은 한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 등을 발견하고 그린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가 발견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이 시대 동아시아에는 짝개 문화만 존재하고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는 모비우스(H. Movius)*의 학설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먹도끼'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시대'는 구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모비우스(Hallam L. Movius, 1907~1987): 미국의 고고학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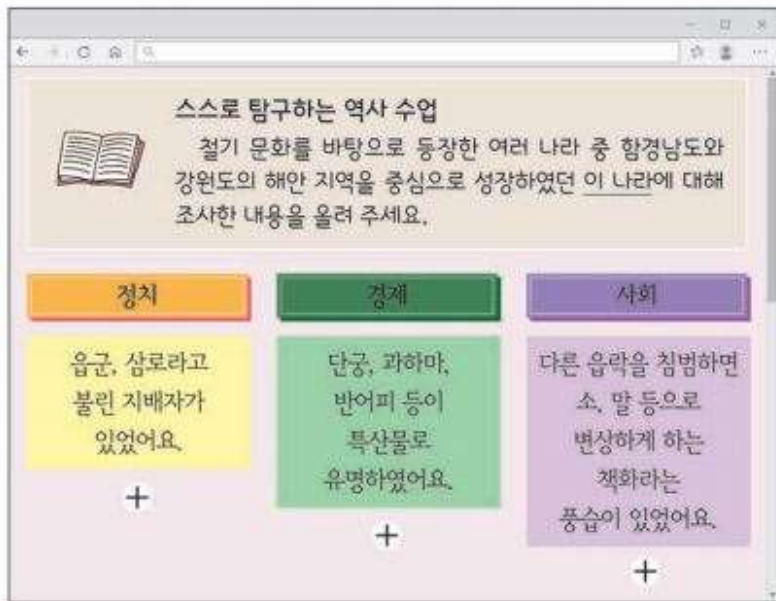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한 것은 삼국 시대의 일이다. 우경**이 널리 보급되어 가능해진 것인데, 특히 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쟁이 등 철제 농기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우경이 확대되었다. 참고로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발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 **우경(牛耕):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는 일. 우경이 사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증왕 3년인 502년의 일이다(즉 사료상의 우경 시작 기록, 실질적으로 그 이전부터 우경이 실시된 것으로 짐작, "주주(州主)와 군주(郡主)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지었다." 『삼국사기』). 아울러 이때 수리 사업도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02 - 초기 국가, 동예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신성 지역인 소도의 역할을 알아본다.
- ② 포상 8국의 난 진압 과정을 찾아본다.
- ③ 삼국유사에 실린 김알지 신화를 분석한다.
- ④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파악한다.
- 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렸던 지역을 조사한다.

정답> ④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 아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나라 중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나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치에 '읍군, 삼로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어요'가, 경제에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하였어요'가, 사회에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라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이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소도: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② 포상 8국**의 난이 있었던 것은 3세기 초반의 일이다(신라 내해이사금(재위 196-230, 제10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이때 포상 8국이 연합하여 아라가야와 신라를 공격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상 8국(浦上八國): 낙동강 하류 및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8개의 소국을 가리킨다.

③ 삼국유사에 실린 김알지 (탄생) 신화***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이다. 김알지는 신라 왕족인 경주 김씨의 시조이다.

***김알지 탄생 신화(설화): 65년 탈해왕이 금성 서쪽 시림(始林)의 수풀 속에서 닭 울음 소리를 듣고서 신하 호공(瓠公)을 시켜 가보게 하였는데 금빛의 작은 함[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다고 호공이 보고 하였다. 이에 왕이 직접 가서 함[궤]을 열어보니 용모가 아름다운 사내아가이 나왔다. 이때부터 시림을 계림(鷄林)이라 하고 아이는 금함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대개(부족장, 군장)들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03 - 고구려와 백제의 사회 모습

3. (가), (나)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왕의 성은 부여씨이고, [왕을] '어라하'라고 하며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부른다. 모두 중국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 도성에는 1만 가(家)가 거주하며 5부로 나뉘는데 상부·전부·중부·하부·후부라고 하며, 각각 5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다. [지방의] 5방에는 각기 방령 1인을 두는데 달솔로 임명하고, 군에는 군장(郡將) 3인이 있으니 덕솔로 임명한다.

- 『주서』 -

(나)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군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 …… [수도는] 5부로 나뉘어 있다.

- 『신당서』 -

- ① (가) -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 ② (가) -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 ③ (나) -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④ (나) -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 ⑤ (가), (나) -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정답> ③

(가)에 '왕의 성은 부여씨이고, [왕을] 어라하라고 하며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부른다. 모두 중국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도성에는 1만 가(家)가 거주하며 5부로 나뉘는데 상부·전부·중부·하부·후부라고 하며, 각각 5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다. [지방의] 5방에는 각기 방령 1인을 두는데 달솔로 임명하고, 군에는 군장(郡將) 3인이 있으니 덕솔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서(周書)』 '백제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백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에는 '60개의 주현이 있으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는데 도독과 비슷하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군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하며, 자사와 비슷하다. …… [수도는] 5부로 나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성의 장관이 '녹살'로 되어드는 이는 '욕살(禰薩·禰薩·辱薩)'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는 고구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태학은 귀족의 자녀를 교육한 국립 교육 기관이고(372, 소수림왕 2), 경당은 지방 교육 기관이다. 경당에서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친 것은 고구려 장수왕 15년인 427년 이후의 일이다(평양 천도 이후).

오답 해설>

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둔 국가는 (백제가 아니라) 고조선이다.

②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한 국가는 (백제가 아니라) 발해이다.

④ 정사암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국가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이다.

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국가는 (고구려와 백제가 아니라) 신라이다.

04 - 황산벌 전투

4.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당의]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대총관(神丘道大總管)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계백은 장군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 명을 뽑아 이들을 막고자 하였다. …… 황산의 별판에 이르러 세 개의 군영을 설치하였다. 신라군을 만나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자, [계백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지난날 구천(句踐)은 5천 명으로 오(吳)의 70만 무리를 격파하였다. 오늘 마땅히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하였다. 드디어 격렬히 싸우니, 일당천(一當千)이 아닌 자가 없었다.

- 『삼국사기』 -

612	642	660	668	676	698
(가)	(나)	(다)	(라)	(마)	
실수 대첩	대야성 전투	사비성 함락	안동도호부 설치	기벌포 전투	발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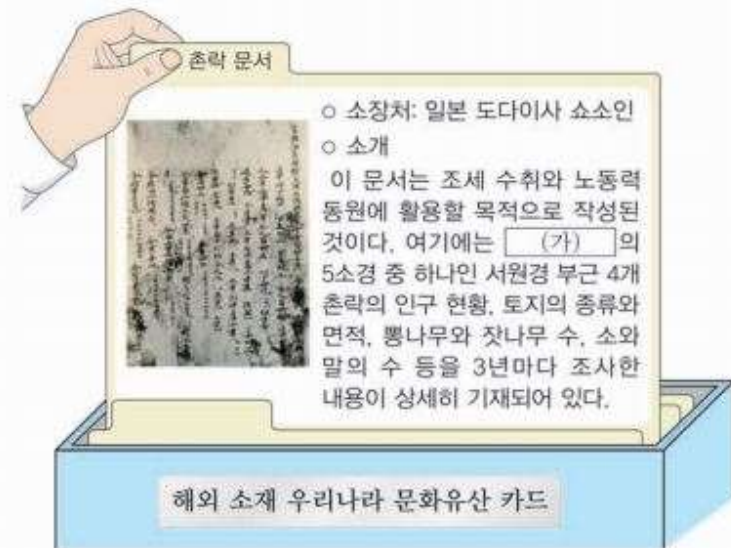
'[당의] 고종이 소정방을 신구도대총관(神丘道大總管)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계백은 장군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 명을 뽑아 이들을 막고자 하였다. …… 황산의 별판에 이르러 세 개의 군영을 설치하였다. 신라군을 만나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자, [계백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지난날 구천(句踐)은 5천 명으로 오(吳)의 70만 무리를 격파하였다. 오늘 마땅히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하였다. 드디어 격렬히 싸우니, 일당천(一當天)이 아닌 자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상황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계백(결사대)의 황산벌 전투임을 알 수 있다(660.7, 백제 의자왕 20).

연표에서는 대야성 전투가 있는 642년에서 도읍인 사비성이 함락된 660년 사이의 시기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05 - 통일 신라의 경제 상황

5.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낙랑군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③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 ④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 ⑤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정답> ⑤

'해외 소재 우리나라 문화유산 카드'라는 제목 아래 소장처가 '일본 도다이샤 쇼소인'으로 되어 있고, 소개에서 '이 문서는 조세 수취와 노동력 동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는 (가)의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인구 현황, 토지의 종류와 면적, 뽕나무와 잣나무 수, 소와 말의 수 등을 3년마다 조사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신라 촌락 문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사진으로도 확인).

*신라 촌락 문서: 조세 수취를 위해 촌락 문서를 작성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 지금의 충북 청주 부근인 서원경의 4개 촌을 대상으로 작성된 신라 촌락 문서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되었다(3년마다 작성). 작성된 시기로는 755년설(경덕왕 14), 816년설(헌덕왕 8), 876년설(헌강왕 6) 등 여러 설이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울산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 (통일) 신라의 최대 무역항은 울산항이었고, 당항성과 영암도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당항성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연결된 일종의 무역 북로, (전남) 영암은 중국의 양쯔강 지역과 연결된 무역 남로의 무역항이었다. 9세기 전반에는 청해진도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낙랑군과 왜에 철을 수출한 국가는 가야(변한)이다. 낙랑군과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참고로 낙랑군은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에 세워져 기원후 313년까지 존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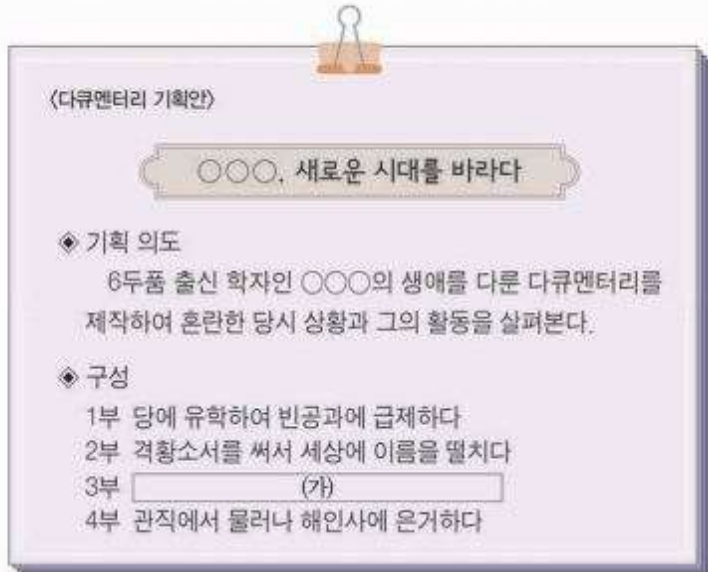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것은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③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처음 발행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④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국가는 발해이다.

06 - 고운 최치원(시무책 10여 조)

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화왕계를 지어 국왕에게 조언하다
- ②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다
- ③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다
- ④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다
-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기다

정답> ③
'○○○, 새로운 시대를 바라다'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6두품 출신 학자인 ○○○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혼란한 당시 상황과 그의 활동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성으로 '1부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다', '2부 격황소서를 써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다', '3부 (가)', '4부 관직에서 물러나 해인사에 은거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는 고운 최치원(85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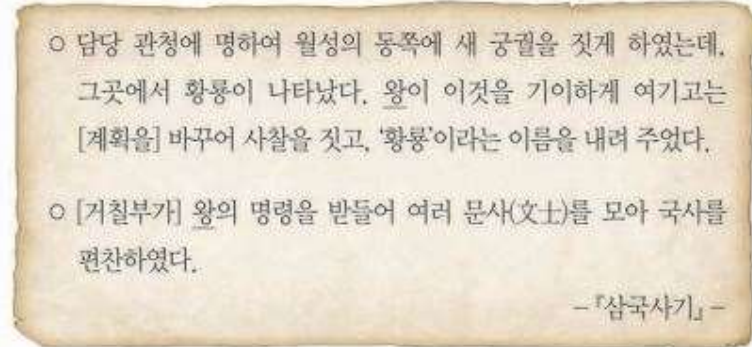
최치원은 귀국 후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894, 진성 여왕 8). 하지만 시무책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화왕계를 지어 국왕(신문왕)에게 조언한 인물은 신라이 설총(655~?)이다. 설총은 신라 화쟁국사 원효(617~686)의 아들이자 문장가, 유학자이다.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 ②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작성한 인물은 강수(?~692)이다.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629~694)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글
- ④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한 인물은 장보고(?~846)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인물은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07 - 신라 진흥왕의 업적

7.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② 예성강 이북에 패강진을 설치하였다.
- ③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④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 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정답> ④

위의 자료에 '담당 관청에 명하여 월성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皇龍이 나타났다. 왕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고는 [계획을] 바꾸어 사찰을 짓고, 皇龍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皇龍사를 짓게 된 이유를 밝힌 것으로, 皇龍사가 창건된 것은 신라 진흥왕 14년인 553년의 일이다. 皇龍사는 불국사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며, 백제의 미륵사, 고구려의 정릉사[흥천사](평양에 위치)와 함께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호국 사찰이다.

아래의 자료에는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문사(文士)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칠부(502~579)가 국사를 편찬한 것은 신라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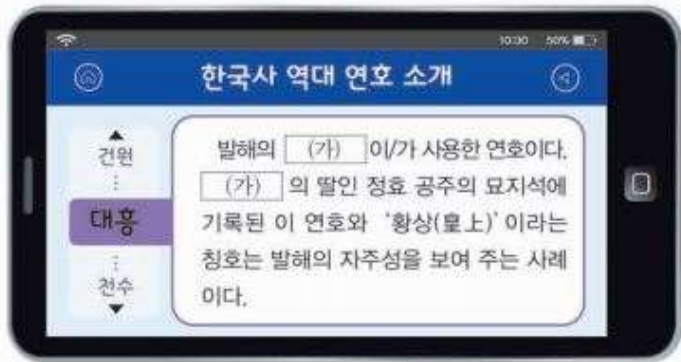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한 것은 진흥왕 37년인 57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게 한 왕은 지증왕(재위 500~512, 제22대)이다(512, 지증왕 13).
- ② 예성강 이북에 패강진을 설치한 것은 선덕왕 3년인 782년의 일이다(황해도 평산에 패강진 설치).
- ③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문왕 7년인 687년이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 ⑤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것은 법흥왕 14년인 527년의 일이다(*528년 공인설 있음).

08 - 발해 문왕(상경 용천부 천도)

8.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 ②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 ③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 ④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확립하였다.

정답> ④

'한국사 역대 연호* 소개'라는 제목 아래 대흥이라는 연호에 '발해의 (가)이/가 사용한 연호이다. (가)의 딸인 정효 공주의 묘지석에 기록된 이 연호와 황상(皇上)이라는 칭호는 발해의 자주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왕'은 발해의 제3대 왕인 문왕(재위 737-793, 대흥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문왕은 이외에도 '보력'이라는 연호를 잠시 사용한 적이 있다(774, 문왕 37). 또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재위 719--737, 대무예)은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덧붙여 자료에 보이는 '건원'은 신라 법흥왕이 재위 23년인 536년에, '천수'는 고려 태조가 재위 원년인 918년에 제정한 연호이다.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겨 체제를 정비한 것은 문왕 20년인 756년의 일이다. 참고로 그 후 문왕은 재위 49년인 785년경에 동경 용원부로 다시 수도를 옮겼는데, 성왕 대(재위 793-794, 제5대)에 상경 용천부로 '환도'하였다(793년으로 추정).

오답 해설>

①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한 것은 고구려의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이다(436, 장수왕 24). 북연왕 풍홍(馮弘)(재위 430-436)이 436년에 북위의 공격을 피해 구원을 요청하자 받아들였다가 풍홍이 장수왕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다시 남송(남조의 송)으로의 망명을 꾀하자 살해하였다.

**북연(北燕): 중국 5호 16국 시대 때 고구려의 왕족 출신인 고운(?~409)이 후연을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이다(407-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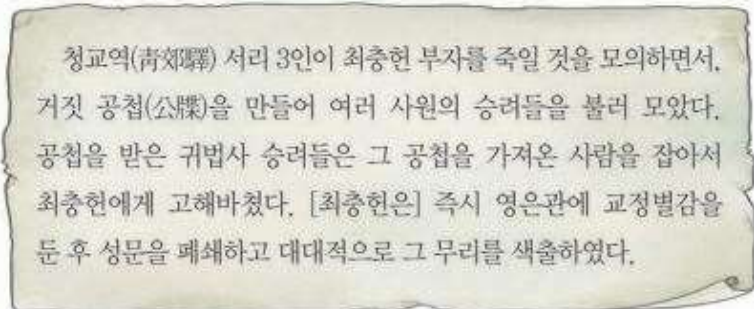
②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운 발해의 왕은 고왕(재위 698-719, 대조영)이다(698).

③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한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재위 391-413, 제19대)이다(400, 광개토대왕 10)(영락 10).

⑤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확립한 것은 선왕 대(재위 818-830, 대인수 10대)이다.

09 - 최우의 정방 설치

9.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②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③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 ④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였다.
- ⑤ 최우가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정답> ⑤

'청교역(靑郊驛) 서리 3인이 최충헌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거짓 공첩(公牒)을 만들어 여러 사원의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공첩을 받은 귀법사 승려들은 그 공첩을 가져온 사람을 잡아서 최충헌에게 고해바쳤다. [최충헌은] 즉시 영은관*에 교정별감을 둔 후 성문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그 무리를 색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배경지식이 좀 필요한 자료로, 청교역 (암살) 모의 사건을 빌미로 최충헌(1149~1219)은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스스로 그 장(長)인 교정별감이 되었다(1209, 고려 희종 5).

*영은관(迎恩館): 요(遼)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개경에 지은 객관(客館) 중 하나이다. 원래 거란의 사신을 맞이하는 곳이었었는데 거란의 멸망 이후 여진이 세운 금(金) 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곳으로도 사용되었다. 개경 흥국사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1249)가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김부식(1075~1151)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

②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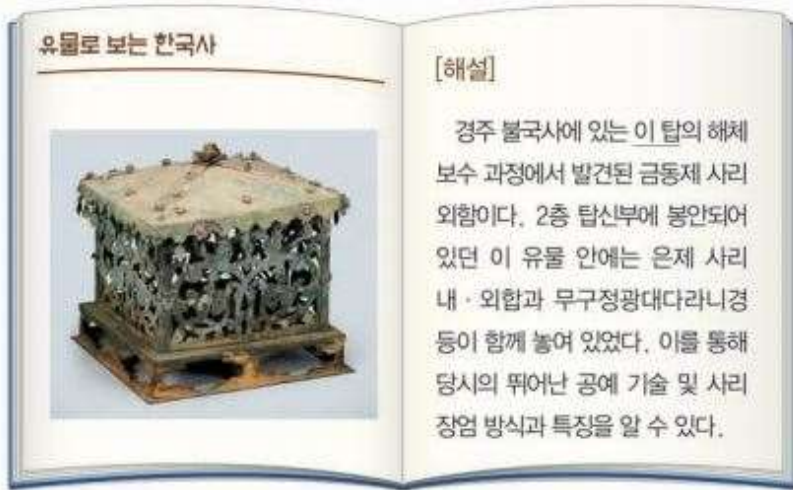
③ 이자겸(?~1126)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한 것은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

④ 정중부(1106~1179), 이의방(?~1174)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한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의 일이다.

10 - 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

10.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①

'유물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해설에 '경주 불국사에서 있는 이 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외함*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층 탑신부에 봉안되어 있던 이 유물 안에는 은제 사리내·외함*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뛰어난 공예 기술 및 사리 장엄 방식과 특징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탑'은 불국사 삼층 석탑, 즉 석가탑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석가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국보 제21호)(751, 통일 신라 경덕왕 10).

*사리 장엄구: 사리(舍利) 즉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보호하거나 장엄(엄숙하게 꾸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용기를 가리킨다. 사리 봉안기에는 사리 공양을 위한 석탑의 조성 과정이나 사찰의 창건 배경도 기록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②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이다(7세기). 국보 제9호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의 대표적인 탑으로 꼽히고 있다.

③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639, 무왕 40). 2018년 6월에 복원되었다.

④ (통일) 신라의 구례 화엄사 사자사 삼층 석탑이다(국보 제35호). 이중 기단과 탑신 사이에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네 마리의 사자를 배치하였다. 중앙에 인물상이 있으나 탑신 덮개돌의 아랫면에는 달아 있지 않다. 네 마리의 사자는 암수로 각각 두 마리씩 표현하였으며 모습도 제각각 다르다.

⑤ 고려의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다. 송의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형 석탑으로, 국보 제48-1호로 지정되었다.

11 - 후백제의 견훤

11.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② 금마저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③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④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③

맨왼쪽 말풍선에 '완산주를 도움으로 삼아 나라를 세운 (가)에 대해 말해 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어요'와, 맨오른쪽 말풍선에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하여 고려에 귀부하였어요'라는 대답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 인물'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인물은 후백제의 견훤(재위 900-935)이다. 후백제는 건국을 전후하여 오월과 교류하다 925년 이후에는 새롭게 건국된 후당과 교류하였으며 927년에는 거란과의 교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① (고려와 후백제 간에 벌어진)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대표적인 인물은 고려의 김락(?~927)과 신승겸 장군(?~927)이다. 공산은 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로, 이때는 후백제군이 고려군을 대파하였다(927.9).

② 금마저(지금의 전북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인물은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재위 600-641)이다(639, 무왕 40).

④ 김흠돌(?~681)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한 인물은 (통일) 신라의 제31대 왕인 신문왕(재위 681-692)이다(681, 신문왕 원년).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인물은 후고구려의 궁예(?~918)이다(905).

12 - 고려 광종 시기의 사실

12.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우리 고장의 유적 ❖

충주 송선사지



송선사는 (가) 이/가 어머니인 신명 순성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절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송선사(崇善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다양한 고려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가) 은/는 치열한 왕위 쟁탈전 속에서 외가인 충주 유씨 세력 등 여러 호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즉위 이후 노비안검법 등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유적 발굴 현장

- 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 ② 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 ③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교서가 반포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을 수복하였다.
- ⑤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답> ②

'충주 송선사지'라는 제목 알 '송선사는 (가)이/가 어머니인 신명 순성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절로, 현재 그 터만 남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곳에서는 송선사(崇善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 등 다양한 고려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가)은/는 치열한 왕위 쟁탈전 속에서 외가인 충주 유씨 세력 등 여러 호족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즉위 이후 노비안검법 등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의 제4대 국왕인 광종(재위 949-975)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고려의 왕은 광종(재위 949-975)이다[각 949(광종 즉위년)부터 광덕, 960(광종 11)부터 준풍 사용].

오답 해설>

- ① 최승로(927~989)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것은 성종 원년인 982년의 일이다.
- ③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정계와) 계백교서가 반포된 것은 태조 19년인 936년의 일이다.
- ④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을 수복하게 된 것은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 ⑤ (신라에서) 지방 세력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상수리 제도가 실시된 것은 5세기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의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을 통제[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방 세력의 자제들 중 한 명을 일종의 볼모로 중앙에 머물게 한 제도로 고려의 기인 제도, 조선의 경저리 제도로 이어졌다.

13 - 고려의 관학 진흥책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독서삼품과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였어요.
- ②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어요.
- ③ 중등 교육 기관으로 4부 학당을 설립하였어요.
- ④ 양현고를 설치하여 장학 기금을 마련하였어요.
- ⑤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어요.

정답> ④

'최종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하였던 시기에 위촉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대화창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어요',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어요', '(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에는 고려 시대의 관학 진흥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양현고를 설치하여 장학 기금을 마련한 것은 고려 예종 14년인 111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독서삼품과를 통해 인재를 등용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 ②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한 것은 조선 명종 5년인 1550년부터의 일이다. 중종 38년인 1543년에 세워진 백운동 서원(풍기 군수 주세붕)이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 ③ 중등 교육 기관으로 4부 학당이 [서울(한양)에] 설립된 것은 조선 시대의 일이다. 원래 5부 학당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북부 학당은 끝내 설치되지 못하고 세종 27년인 1445년에 폐지되어, 결국 4부 학당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 ⑤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젊은) 문신을 재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14 -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

14.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의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하여 궁궐을 불사르고 퇴각하였다. …… 양규는 (가)의 군대를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0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000여 명을 되찾았다. 다시 이주에서 전투를 벌이고 추격하여 석령까지 가서 2,5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1,000여 명을 되찾았다.
- (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전투를 벌였다. …… 적병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아군이 그 뒤를 쫓아가서 공격하였는데,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기까지 시신이 들에 가득하였다.

- 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 ②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③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 ④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설치하였다.
- 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정답> ②

위의 자료에 '(가)의 임금이 개경으로 침입하여 궁궐을 불사르고 퇴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양규는 (가)의 군대를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0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000여 명을 되찾았다. 다시 이주에서 전투를 벌이고 추격하여 석령까지 가서 2,5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1,000여 명을 되찾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무신 양규(?~1011)의 활약상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거란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임을 알 수 있다(1010, 현종 원년).

아래의 자료에는 '(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적병이 북쪽으로 달아나자 아군이 그 뒤를 쫓아가서 공격하였는데, 석천을 건너 반령에 이르기까지 시신이 들에 가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강감찬(948~1031)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거란의 제3차 침입 시의 일이다(1019, 현종 10)(귀주 대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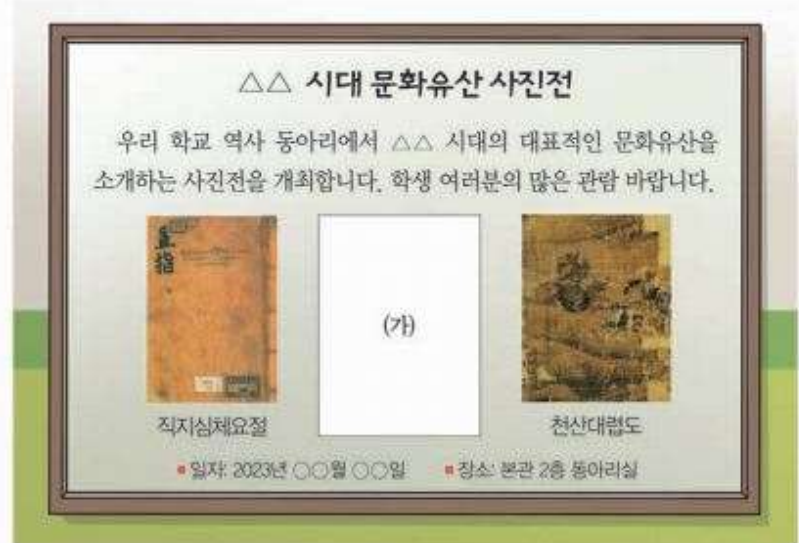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것은 고려 정종 대(재위 945-949, 제3대)의 일이다(947, 정종 2). 참고로 이때 지방 농민으로 조직된 광군을 통할하기 위해 광군사가 조직되었다. 광군은 처음에 지방 실권자인 호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광군사는 이들 호족을 통하여 광군을 통할하였으나, 이후 광군이 주현군(지방군)으로 편입되면서 광군사가 직접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무신 집권자 최우(?~1249)의 강요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항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강화도 천도).
- ③ 박위(?~1398)를 파견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토벌한 것은 고려 창왕 때의 일이다(1389, 고려 창왕 원년).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이종무(1360~1425)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쓰시마섬을 다시 토벌하였다(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됨).
- ④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개척한 것은 세종 대(재위 1418-1450, 제4대)의 일이다(여진족 대비). 구체적으로는 세종 15년인 1433년부터 최윤덕(1376~1445)에 의해 4군이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참고로 이듬해인 1434년(세종 16)에는 김종서(1383~1453)에 의해 6군이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4군과 6진의 개척이 완성하기까지는 이후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 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편성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에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15 -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15.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금동 대항로
- ② 호우총 청동 그릇
- ③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 ④ 이불병좌상
- ⑤ 인왕제색도

정답> ③

'△△ 시대 문화유산 사진전'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와 함께 직지심체요절과 천산대첩도가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직지, 즉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1377, 고려 우왕 3), 천산대첩도는 고려 제31대 국왕인 공민왕(재위 1351-1374)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수렵도이다. 따라서 주어진 (가)에는 고려 시대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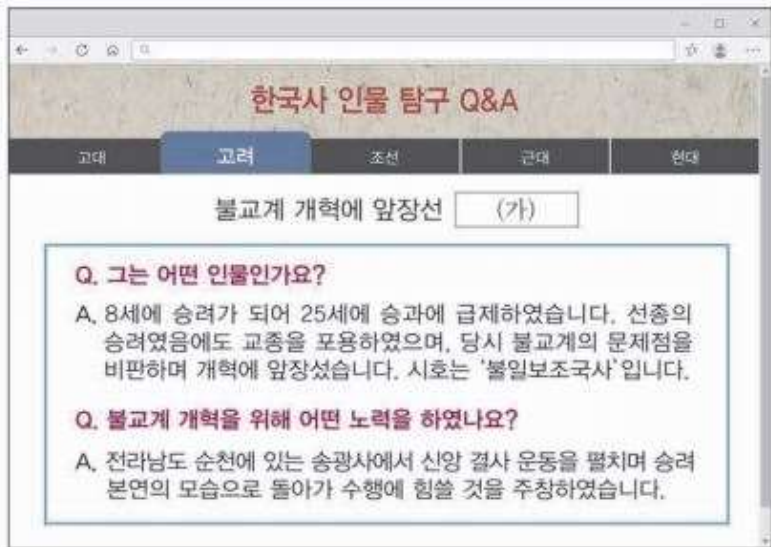
선지 3의 청자 상감 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가 바로 고려 시대에 제작된 상감 청자이다. 표주박 형태의 병에 주구(注口)와 손잡이를 갖춘 주전자로 국보 제116호이다.

오답 해설>

- ① 백제의 금동 대항로이다. 뚜껑 꼭대기에 봉황이 부착되어 있고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다. 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국보 제287호)(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 백제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② 호우총 청동 그릇은 일명 '호우명 그릇'으로, 신라의 고분 호우총(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청동 그릇이다. 그릇 바닥에 을묘년인 415년에 광개토대왕을 기념하여 만든 열 번째 그릇이라는 뜻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 ④ 발해의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동경 용원부 유지에서 발견되었다. 현재는 일본의 동경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불병좌상은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인왕제색도는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진경 산수화이다. 금강전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51년작, 황혼에 접어든 일흔 여섯의 나이에 완성).

16 - 불일보조국사 지눌

1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참선을 강조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②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제창하였다.
- ④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정답> ①

'불교계 개혁에 앞장선 (가)'라는 제목 아래 그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8세 승려가 되어 25세에 승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선종의 승려였음에도 교종을 포용하였으며,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시호는 '불일보조국사'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불교계 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치며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수행에 힘쓸 것을 주창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임을 알 수 있다.

지눌은 참선을 강조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국청사를 본찰로 하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1097, 숙종 2).
- ③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인물은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다(1226, 고종 13). 선문염송집은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은 공안집[화두집]이다.
- ④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인물은 각훈(?~?)이다(1215, 고종 2).
- ⑤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한 인물은 균여(923~973)이다(광종 대인 963년과 967년 사이에 지음).

17 -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

17.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의논하였다. …… 마침내 8도의 군사를 징발하고 최영이 동교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나)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다. …… 이성계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다)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여야 한다. 무릇 수도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는 자는 현직, 산직(散職)을 불문하고 각각 과(科)에 따라 받게 한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①

(가)에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는 일을 최영과 은밀하게 의논하였다. …… 마침내 8도의 군사를 징발하고 최영이 동교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성계(1335~1408)가 이끄는 요동 정벌군이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출발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 음력 4월 18일의 일이다.

(나)에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다. …… 이성계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요동 정벌군이 위화도에 도착한 것은 1388년 음력 5월 7일의 일이다. 그리고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진 것은 1388년 음력 5월 22일이었다(회군한 반란군이 개경에 도착한 것은 같은 해 음력 6월 1일).

(다)에는 '도평의사사에서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여야 한다. 무릇 수도에 거주하며 왕실을 지키는 자는 현직, 산직(散職)을 불문하고 각각 과(科)에 따라 받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18 - 고려의 경제 모습

18.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안서도호부에서 바친 철은 예전에는 무기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근래에 흥왕사를 창건하면서 또다시 철을 더 바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염주, 해주, 안주 세 곳에서 2년 동안 바치는 철을 흥왕사 창건에 쓰게 하여 수고로운 폐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 ①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③ 허적의 제안에 따라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 ④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규정한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 ⑤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정답> ①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안서도호부에서 바친 철은 예전에는 무기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근래에 흥왕사를 창건하면서 또다시 철을 더 바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청컨대 염주, 해주 안주 세 곳에서 2년 동안 바치는 철을 흥왕사 창건에 쓰게 하여 수고로운 폐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군기 및 국방상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국방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가 나온 것에서 주어진 자료는 고려 시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에겐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시과가 시행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에 시정 전시과가, 이후 목종 원년인 998년에 개정 전시과가, 다시 문종 30년인 1076년에 또다시 경정 전시과(전시과의 완성)가 시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②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 ③ 허적(1610~1680)의 제안에 따라 상평통보를 발행한 것은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 공식 화폐로 주도되어 널리 유통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물품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이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④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규정한 계해약조를 체결한 것은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건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 ⑤ 상권 수호를 목적으로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광무 2년이자 고종 35년인 1898년 7월의 일이다.

19 - 조선 영조(속대전)

19.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어전준천제명첩』에 담긴 어제사언시(御製四言詩)로, (가) 이/가 흥봉한 등 청계천 준설 공사에 공이 있는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은 것이다.

청계천 준설을 추진한 (가)은/는 탕평, 균역 등도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한 글을 남겼다.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②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③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 ④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산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정답> ④

'이것은 『어전준천제명첩』에 담긴 어제사언시(御製四言詩)로, (가) 이/가 흥봉한 등 청계천 준설 공사에 공이 있는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은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청계천 준설을 추진한 (가)은/는 탕평, 균역 등도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한 글을 남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왕'은 조선의 제21대 국왕인 영조(재위 1724-177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재위 36년인 1760년에 준천사를 설치하여 청계천을 준설한 바 있다.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한 것은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한 것은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의 일이다. 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솔)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솔) 두 차례 나선 정벌이 단행되었다.
- ② 경기도에 한하여 대동법을 시행한 것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의 일이다.
- ③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의 일이다. 훈련도감은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산서[역법서]인 칠정산(내편)을 만든 것은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이순지, 김담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20 - 무오사화

2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왕이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미천한 선비였는데, 선왕께서 발탁하여 경연에 두었으니 은혜와 총애가 더없이 컸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 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신고서 그 글을 찬양하였으니, 형명(刑名)을 의논하여 아뢰어라."라고 하였다.

1468	1494	1506	1518	1545	1589
(가)	(나)	(다)	(라)	(마)	
남이의 옥사	연산군 즉위	중종 반정	소격서 폐지	명종 즉위	기축 옥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왕이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미천한 선비였는데, 선왕께서 발탁하여 경연에 두었으니 은혜와 총애가 더없이 컸다고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부도덕한 말로써 선왕 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신고서 그 글을 찬양하였으니, 형명(刑名)을 의논하여 아뢰어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종직'과 '조의제문'이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조선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오사화는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이 사초에 기록된 것이 트집 잡혀 발생하였고, 그 제자인 김일손(1464~1498) 등의 사람파가 처형되는 수난을 당하였다.

연표에서는 연산군 즉위년인 1494년과 중종반정이 일어나는 1506년 사이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21 - 조선 세조 시기의 사실

21.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신문

제△△호 ○○○○년 ○○월 ○○일

원각사 창건 당시 작성된 계문(契文) 공개



원각사의 낙성을 축하하는 경찬회 때 (가) 이/가 조정 신하와 백성에게 수록재 참여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원각사 계문이 공개되었다. 조선의 임금과 왕실이 불교 행사를 직접 후원하였다는 기록이 희소하기에 의미가 있다.

한명회,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가) 은/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고 원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후원하였다.

- ① 주자소에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②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완성하였다.
- ③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 ④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정답> ④

'원각사 창건 당시 작성된 계문(契文) 공개'라는 제목 아래 '원각사의 낙성을 축하하는 경찬회 때 (가)이/가 조정 신하와 백성에게 수록재* 참여를 권하는 내용이 담긴 원각사 계문이 공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의 임금과 왕실이 불교 행사를 직접 후원하였다는 기록이 희소하기에 의미가 있다. 한명회, 권람 등의 조력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가)은/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고 원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후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시대의 흥복사 터(흥복사지)(지금의 서울 탑골 공원 자리)에 원각사(圓覺寺)를 세운 것은 조선 세조 11년인 1465년의 일이다(사월초파일 낙성). 참고로 2년 뒤인 1467년에는 원각사지 십층 석탑이 건조되었다.

*수록재(水陸齋): 불교에서 물과 육지를 해매는 영혼과 아귀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 의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된 것은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주자소에서 계미자가 주조된 것은 태종 3년인 1403년의 일이다.
- ②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것은 성종 5년인 1474년의 일이다.
- ③ 삼남 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관찬(官撰)으로 편찬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 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내의원에서) 간행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참고로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 집필을 끝낸 것이 광해군 2년인 1610년이다.

22 - 율곡 이이

22.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렸다.
- ② 청으로부터 시현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 ③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하였다.
- ④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례집람을 지었다.
- ⑤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집필하였다.

정답> ⑤

맨왼쪽 말풍선에 '해주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에 힘썼던 이 인물에 대해 말해 보자'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동호문답에서 수취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말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격몽요결을 저술하여 체계적인 성리학 교육에 힘썼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해주향약', '동호문답', '격몽요결'이라는 부분에서 밑줄 그은 '이 인물'은 율곡 이이(1536~1584)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이는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학집요를 집필하였다(1575, 선조 8).

오답 해설>

- ①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기축봉사를 올린 인물은 우암 송시열(1607~1689)이다(1649, 효종 즉위년).
- ② 청으로부터 시현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인물은 잠곡 김육(1580~1658)이다(1653, 효종 4).
- ③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양반전을 저술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저술 연대 미상).
- ④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가례집람을 지은 인물은 서인의 영수이자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1548~1631)이다. 가례집람은 김장생 사후인 숙종 11년(1685)에 간행되었다.

<23번 오답 해설>

- ③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언적 등이 화를 입은 것은 명종 2년인 1547년의 일이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소윤) 세력이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 붙여진 벽서를 빌미로 을사사화(1545) 이후 잔존한 반대파 인물들(대운 세력과 사림계)을 재차 숙청한 사건이다. '정미사화'라고도 하는데 후일 소윤 일파 몰락 후 벽서 사건 자체가 무고임이 공인되었다.
- ④ 인현 왕후(1667~1701)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것은 숙종 15년인 1689년에 일어난 기사환국 때의 일이다.
- ⑤ 이인좌(1695~1728)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영조 4년인 1728년의 일이다(이인좌의 난, 무신란).

23 - 인조반정

2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처음에 심의겸이 외척으로 권세를 부리니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섬겨 따랐다. 그런데 김효원이 전랑(銓郎)이 되어 그들을 배척하자 심의겸의 무리가 그를 미워하니, 점차 사람이 나뉘어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나) 기해년에 왕이 승하하자 재신 송시열이 사종(四種)의 설을 인용하여 "대행 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된다.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이니 기년복(戡年服)*을 입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허목 등 신하들은 전거를 들어 다투기를, "대행 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둘째이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기년복(戡年服): 1년 동안 입는 상복

- ①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 ② 목호룡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 ③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언적 등이 화를 입었다.
- ④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 ⑤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정답> ①

(가)에 '처음에 심의겸이 외척으로 권세를 부리니 당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섬겨 따랐다. 그런데 김효원이 전랑(銓郎)이 되어 그들을 배척하자 심의겸의 무리가 그를 미워하니, 점차 사람이 나뉘어 동인과 서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동인(김효원 지지 세력)과 서인(심의겸 지지 세력)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조선 선조 8년인 1575년의 일이다(이른바 '동서 분당').

(나)에는 '기해년에 왕이 승하하자 재신 송시열이 사종(四種)의 설을 인용하여, 대행 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된다. 왕통을 이었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이니 기년복(戡年服)*을 입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대해 허목 등 신하들은 전거를 들어 다투기를, 대행 대왕은 왕대비에게 서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 둘째이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해년인 1659년(현종 즉위년)에 발생한 (기해)예송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서인인 송시열이 주장한 기년복설(1년설)이 남인의 참최설(3년설)에 대해 승리하였다(현종 15년인 1674년에는 갑인예송(2차 예송) 발생).

*기년복(戡年服): 1년 동안 입는 상복

인조반정으로 복인 세력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광해군 15년인 1623년의 일이다. 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1595~1649)을 왕위(인조, 재위 1623-1649, 제16대)에 앉혔다.

오답 해설>

- ② 목호룡(1684~1724)의 고변으로 옥사가 발생한 것은 경종 2년인 1722년의 일이다. 목호룡의 고변이란 1722년 음력 3월에 소론측에 가담한 목호룡이 노론이 세 가지 수단(삼급수, 즉 갈, 독약, 폐출의 세 가지 수단)을 통해 경종을 시해하거나 내쫓으려 했다는 고변으로 신임사화*의 빌미가 되었다.


*신임사화: 왕통 문제(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해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여 숙청한 사건이다. 경종 원년인 1721년 신축년과 재위 2년인 1722년 임인년에 일어 사화라 하여 신임사화라 부른다. 이때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수많은 인물이 화를 입었다.

24 - 청에 대한 조선의 정책

24.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 ◆ 주제: 남한산성에서 삼학사의 충절을 만나다
- ◆ 날짜: 2023년 ○○월 ○○일
- ◆ 내용: 현절사(顯節祠)는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충절을 기려 남한산성에 세운 사당이다. 그들은 (가)의 침입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화의를 반대하며 결사 항전을 주장하였다. 항복 이후 그들은 (가)(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그들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던 김상헌, 정온도 추가로 이곳에 모셔졌다.
- ◆ 사진



- ① 만권당을 세워 학문 교류를 장려하였다.
- ② 어영청을 강화하는 등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③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 ④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였다.
- ⑤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유정을 회답 겸 쇄환사로 파견하였다.

정답> ②

'답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남한산성에서 삼학사의 충절을 만나다'가 나와 있다. 내용으로 '현절사(顯節祠)는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충절을 기려 남한산성에 세운 사당이다. 그들은 (가)의 침입으로 발생한 전쟁에서 화의를 반대하며 결사 항전을 주장하였다. 항복 이후 그들은 (가)(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다. 그들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던 김상헌, 정온도 추가로 이곳에 모셔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국가'는 1636년 4월 후금에서 국명을 바꾼 청(淸)[대청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어영청을 강화하며 북벌을 추진한 것은 조선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의 일이다. 북벌의 대상은 청(나라)이었다. 참고로 어영청이 처음 설치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이다.

오답 해설>

- ①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이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세워진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충선왕은 익재(역용) 이제현(1287~136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만권당으로 불렀다.
- ③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왜구의 격퇴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④ 사신 접대를 위해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한 것은 조선 태종 7년인 1407년의 일이다. 동평관은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로, 왜관(倭館)이라고도 하였다.
- ⑤ 포로 송환을 위해 사명대사 유정(1544~1610)을 회답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한 것은 조선 선조 37년인 1604년의 일이다. 이때 유정은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1542~1616)를 만나 강화를 맺고 이듬해에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 3,000여 명을 인솔하여 귀국하였다. 참고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1607년(선조 40) 정사(正使) 여우길 일행도 회답 겸 쇄환사로 일본에 파견된 적이 있다(이후에도 통신사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두 차례 더 파견).

25 -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

25. 밑줄 그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시(詩)로 만나는 한국사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
온갖 재화가 이익을 좇아
수레가 끊임없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
함경도의 삼베, 한산의 모시
쌀, 콩, 벼, 기장, 조, 피, 보리
.....

[해설] 이것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이다. 시의 내용을 통해 이 시기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① 백성에게 정전이 지급되었다.
- ② 서경에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
- ③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 ④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⑤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정답> ⑤

'시(詩)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는/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온갖 장인들이 살고 일하니/사람들이 많아서 어깨를 부딪히네/온갖 재화가 이익을 좇아/수레가 끊임없네/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실/함경도의 삼베, 한산의 모시/쌀, 콩, 벼, 기장, 조, 피, 보리/.....'라는 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해설로 '이것은 한양의 모습을 그린 『성시전도』를 보고 박제가가 지은 시의 일부이다. 시의 내용을 통해 이 시기 생동감 있는 시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현과 종루 그리고 칠패'라는 부분을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시기'는 조선 후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것은 (통일) 신라 성덕왕 대의 일이다(722, 성덕왕 21).
- ② 서경(지금의 평양)에 관영 상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개경(지금의 개성)에는 시전이 설치되어 관허 상인들이 관청과 귀족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전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경시서의 관리들이 감독하였다(물가 안정에도 기여). 그리고 개경, 서정, 동경(지금의 경주)과 같은 대도시에는 관청 수공업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일반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관영 상점들이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도시 거주민들이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는 비정기적 시장이 열리기도 하였다.
- ③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된 것은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의 일이다(최초의 철전).
- ④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26 - 비변사

26.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어, 의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 간택 등의 일까지도 모두 (가) 을/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가) 을/를 고쳐 정당(政堂)으로 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판하(判下): 안건을 임금이 허가하는 것

- 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 ②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 ③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 ④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았다.
- ⑤ 대사성을 수장으로 꿰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정답> ③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어, 의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시험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 간택 등의 일까지도 모두 (가)을/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가)을/를 고쳐 정당(政堂)으로 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비변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판하(判下): 안건을 임금이 허가하는 것

비변사는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1863년 12월에서 1873년 11월까지

오답 해설>

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기구는 홍문관이다(1478, 성종 9). 대제학이 수장이며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감독하는 경연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② 서얼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된 기구는 규장각이다.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된 인물 4인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이다(1779, 정조 3).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일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④ 서울과 수원에 설치되어 국왕의 호위를 맡은 기구는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다(1793, 정조 17). 서울(한양 도성)에 내영을,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정조 사후인 순조 2년(1802년)에 폐지되었다.

⑤ 대사성을 수장으로 꿰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둔 기구는 성균관****이다. 대사성(大司成)은 정3품, 꿰주[祭酒]는 종3품, 직강(直講)은 종5품이다.

****성균관 직제: 위 직제는 조선 초기의 것이고, 이후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성균관 직제는 지사(정2품, 겸관) 1인, 동지사(종2품, 겸관) 2인, 대사성(정3품) 1인, 사성(종3품) 2인, 사예(정4품) 3인, 직강(정5품) 4인, 전적(정6품) 13인, 박사(정7품) 3인, 학정(정8품) 3인, 학록(정9품) 3인, 학유(종9품) 3인을 두었고, 서리 10인을 배속시켰다.

27 - 추사 김정희

2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②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③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④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⑤ 안평 대군의 꿈을 소재로 몽유도원도를 그렸다.

정답> ③

'특별전 제주에서 다시 만난 세한도'라는 제목 아래 '이 작품은 (가)의 세한도로, 완당이라는 그의 호가 도인(圖印)으로 찍혀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청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1852, 철종 3).

오답 해설>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은 발해고를 지은 영재 유득공(1748~1807)이다(1784, 조선 정조 8).

②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89, 정조 13).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는 물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되었다.

④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⑤ 안평 대군의 꿈을 소재로 몽유도원도를 그린 인물은 세종 대 화원 안견(?~?)이다(1447, 세종 29).

28 - 황사영 백서 사건

2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가 [진산의] 죄인 윤지충과 권상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아뢰었다. “…… 근래에 그들은 평소 살아 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한 일입니다. 제사를 폐지한 일은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나)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얼마 전 죄인 남종삼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획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하였습니다.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외적을 끌어들이 음모를 꾸몄으니, 즉시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 [베르뇌를 비롯한] 서양인 4명을 군영에 넘겨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 ① 대중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되었다.
- ②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다.
- ③ 보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④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다.
-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⑤

(가)에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가 [진산의] 죄인 윤지충과 권상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아뢰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 근래에 그들은 평소 살아 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한 일입니다. 제사를 폐지한 일은 오히려 부차적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정조 15년인 1791년에 발생한 '진산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진산 사건'이란 당시 전라도 진산(珍山)의 두 선비 권상연(1750~1791), 윤지충(1759~1791)이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워 발생한 사건으로, '신해박해'라고도 부른다.

(나)에는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얼마 전 죄인 남종삼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획이 있다는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감히 나라를 팔아먹고자 몰래 외적을 끌어들이 음모를 꾸몄으니, 즉시 참형에 처해야 합니다. …… [베르뇌를 비롯한] 서양인 4명을 군영에 넘겨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천주교 순교자 남종삼(1817~1866)(세례명 요한)과 '프랑스'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병인박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66, 고종 3).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1801.9, 황사영 백서 사건). 해당 연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이다(1801.10).

오답 해설>

- ① 대중교 계열의 중광단이 결성된 것은 1911년 3월의 일이다.
- ② 만해 한용운(1879~1944)이 (조선 불교의 개혁을 위해)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한 것은 1910년대 초의 일이다(1910년 탈고, 1913년 간행).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17장으로 이루어진 각 항목에서 한용운은 불교의 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승단의 제도와 의식, 사찰의 조직, 승려의 취처(聚妻)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선 불교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한용운은 훌륭하게 유신하는 자는 훌륭하게 파괴하는 자라 하여,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깨뜨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낡은 습관을 새로운 세대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개혁임을 역설하였다.
- ③ 보은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동학교도들의 집회가 열린 것은 고종 30년인 1893년 3월의 일이다(보은 집회, 보은 취회).
- ④ 지봉 이수광(1563~1628)이 지봉유설을 편찬한 것은 광해군 6년인 1614년의 일이다.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이다.

29 - 환재 박규수

2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하였다.
- ②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③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하였다.
- ④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 ⑤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정답> ③

'개화사상의 선구자'라는 제목 아래 '박지원의 손자이며,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자신의 사랑방에서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 정세를 전하였으며, 청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호 개방을 주장하는 등 개화사상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박지원의 손자'와 '진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로 파견되었다'는 부분 등에서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환재 박규수(1807~1876)임을 알 수 있다.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 관민이 불태워 격침시킨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 그런데 이때 마침 박규수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임 중이었다.

오답 해설>

- ① 조선 중립화론을 건의한 인물은 구당 유길준(1856~1914)이다(1885.6).
- ② 영국인 베델(1872~1909)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인물은 우강 양기탁(1871~1938)이다(1904.7).
- ④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세계 지리서]를 저술한 인물은 혜강 최한기(1803~1877)이다(1857, 철종 8). 이 책에서 최한기는 우주 현상과 지리, 문화 현상을 상술하였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하였고, 자전과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것임을 밝혔다.
- ⑤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긴 인물은 위당 신현(1810~1884)이다.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전권대신이었다.

30 - 갑신정변

30.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 ②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개혁 추진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 ④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 ⑤ 민영익 등이 보병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가운데 말풍선에 '이번 시간에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김옥균 등이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맨왼쪽 말풍선에는 '그들이 개혁안에서 내세운 인민 평등권 확립 등은 이후의 근대적 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고,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하지만 일부 급진 개화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고, 청과의 사대 관계 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일본의 힘에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사건'은 조선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에 발생한 갑신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성 조약이 체결된 것은 갑신정변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1885.1). 참고로 청과 일본은 같은 해 4월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4).

오답 해설>

- ①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던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1894.1~11, 고종 31).
- ③ (자주적인 내정) 개혁 추진을 위해 교정청이 설치된 것은 1894년 6월의 일이다(1894.6.11). 하지만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협박하여 6월 25일 군국기무처가 설치됨에 따라 교정청은 폐지되었다.
- ④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된 사건은 임오군란이다(1882.6~7, 고종 19).
- ⑤ 민영익 등이 보병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이다(1882.5, 고종 19).

*보병사: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병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흥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병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31 - 3·1 운동

31.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김광제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 ③ 제암리 학살 등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 ④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⑤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정답> ③

'김경화 등 6명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유공 인정'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보훈처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로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번 포상에는 (가)의 1주년에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배화 여학교 학생 여섯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최대 민족 운동인 (가)의 영향을 받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소식을 접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웠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운동'은 1919년의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1 운동 당시 우리 민족은 제암리 학살* 등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제암리 학살 사건: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소재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으로, 당시 일제 군경이 무고한 양민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은 후 문을 잠그고 집중 사격을 가하여 28명을 학살하였다(이후 교회당 방화). 그리고는 다시 부근의 채암리로 가서 다시 민가를 방화, 31호를 불태우고 39명을 또다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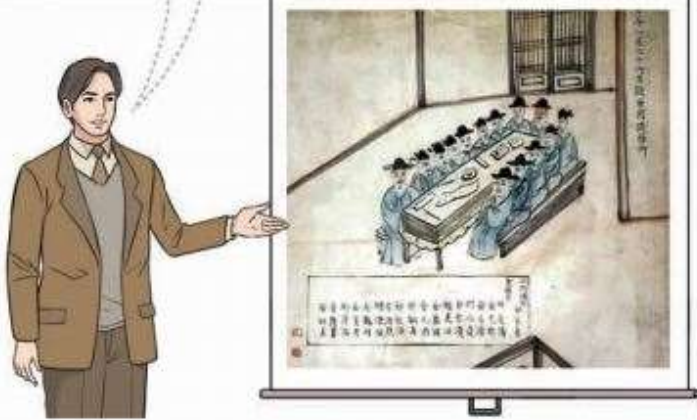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김광제(1866~1920) 등의 발의로 본격화된 운동은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된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10).
- ④ 신간회에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1930.3).
- ⑤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 역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성진회는 광주 지역 학생들이 1926년 11월에 결성한 비밀 결사로, 1926년 6월 독서회 중앙부로 계승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2 - 제1차 갑오개혁

32.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그림은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총재 김홍집 등 회의에 참여한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개월 동안 20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① 원수부를 두었다.
- ②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③ 은본위제를 도입하였다.
- ④ 태양력을 공식 채택하였다.
- ⑤ 5군영을 2영으로 통합하였다.

정답> ③
 '이 그림은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림의 아래쪽에는 총재 김홍집 등 회의에 참여한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군국기무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개월 동안 20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군국기무처'라는 부분에서 밑줄 그은 '개혁'은 제1차 갑오개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4.7~12). 조선 정부는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위해 처음에 교정청이 설치하였으나(1894.6.11),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을 협박하는 등(1894.6.21) 일본의 강요로 의정부 산하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1894.6.25).

은본위제를 도입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원수부를 둔 것은 광무개혁 때인 1899년 6월의 일이다[광무 3년(고종 36)].
- ② 사법권을 독립시켜 재판소를 설치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12-1895.8).
- ④ 태양력을 공식 채택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 ⑤ (군제를 개편하여) 5군영을 2영(무위영, 장어영)으로 통합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11월의 일이다.

33 - 독립 협회의 활동

3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한국사 동영상 제작 계획안

○○○○, 공론의 장을 열다

△학년 △반 △모둠

■ 제작 의도
 지식인뿐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의 활동을 살펴본다.

■ 장면별 구성 내용

- #1. 독립문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으다
- #2.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 #3. (가)
- #4. 황국 협회의 습격으로 사망한 구두 수선공의 장례를 치르다

- ①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다
- ②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 ③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다
- ④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현의 6조를 결의하다
- 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를 반포하다

정답> ④

'○○○○. 공론의 장을 열다'는 제목 아래 제작 의도로 '지식인뿐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의 활동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면별 구성 내용으로 '#1. 독립문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으다', '#2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 '#3. (가)', '#4. 황국 협회의 습격으로 사망한 구두 수선공의 장례를 치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은 독립 협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현의 6조를 결의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10월의 일이다(1898.10.29). 이로써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고종의 독립 협회 해산 명령으로 곧 좌절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민족 교육을 위해)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이다(1908.9).
- ②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한 것은 대한 자강회이다(1906.4). 대한 자강회는 국민 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 아래 서울에서 조직된 애국 계몽 단체이다. 1905년 5월 조직된 헌정 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발족하였는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해산당하고 말았다(1907.8).
- ③ (일종의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한 것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일이다(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난 시기). 1894년 7월에 제1차 봉기 주동자인 전봉준(1855~1895)과 전라도 관찰사인 김학진(1838~1917) 사이에 집강소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호남 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되었다(호남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군현에도 설치되었다는 학설 있음).
- 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가 반포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제2차 갑오개혁, 1894.12~1895.8).

34 - 제1차 한일 협약

34.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을 알아본다.
- ②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 ③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의 영향을 파악한다.
- ④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과정을 조사한다.
- 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를 찾아본다.

정답> ①

'해외 언론 보도로 본 민족 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쏘았다. 그는 대한 제국의 외교 고문에 임명되어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자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는 어떤 처벌에도 불만이 없으며, 조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대한 정부의 외교 고문이었던 친일적인 행동을 한 미국인 (더햄 화이트) 스티븐스(1851~1908)가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서 장인환(1876~1930)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당시 전명운(1884~1947)도 가세, '스티븐스 저격 사건').

스티븐스가 대한 제국의 외교 고문이 된 것은 1904년 8월 대한 제국과 일본이 맺은 제1차 한일 협약 때문이다(고문 정치). 내정 개선의 구실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초빙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답 해설>

- ② 삼국 간섭이 일어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 삼국 간섭이란 청일 전쟁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강화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1895.4.17),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의 랴오둥 반도 영유에 반대하여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한 사건을 가리킨다.
- ③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11년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1910년 12월 발생한 안악 사건을 빌미로 총독 암살 미수로 사건을 확대하여 1911년 9월 6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였다(관서 지방 전체로 탄압을 확대). 이로써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 ④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 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은 고종 33년인 1896년 2월의 일이다(1896.2.11)(아관 파천).

35 - 돈헌 임병찬(독립 의군부)

35.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2점]



- 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 ②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③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④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하였다.
- ⑤ 논설 단연보국채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정답> ②

'나는 지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 와 있어. 이곳에 (가)의 동상이 있네'라는 말에 '그에 대해 설명해 줄래?'라는 물음이 나와 있다. 이어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의해 쓰시마섬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어. 이후에는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지'라는 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돈헌 임병찬(1851~191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를 받아 1912년 9월 (대한)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3.5).

오답 해설>

- 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인물은 이재명 의사(1886~1910)이다(1909.12.22).
- ③ 국권 침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한 인물은 민족주의 사학자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 ④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한 인물은 이인영(1868~1909)이다. 하지만 이인영은 선발대 300명이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여 일본군과 혈전을 벌이는 중부친상을 빌미로 지휘권을 군사장인 왕산 허위(1855~1908)에게 맡기고 낙향하였다(1908.1).
- ⑤ (황성신문에) 논설 단연보국채(斷煙報國債)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07.2.25).

36 - 조선 혁명군

36.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
- ③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 ④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 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창설되었다.

정답> ②

주제로 '(가)의 무장 독립 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국민부 산하 군사 조직으로 편성되었다가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하여 재편되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총사령에 양세봉, 참모장에 김학규가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었습니다'가,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만주 사변 이후 중국 의용군과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조선 혁명군'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은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1932.3-7)(한중 연합 작전). 영릉가는 중국의 요령성 신빈현에 위치한 지명이다.

오답 해설>

- ① 간도 참변 이후 (밀산에서 집결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한 부대는 대한 독립군단(총재 서일)이다(1920.12)(자유시 참변, 1921.6.28).
- ③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된 부대는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이다.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1942.7.10).
- ④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부대는 한국광복군이다.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의 요청으로 1943년 8월 10여 명의 비전투 대원들(인면전구공작대)을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였다(한·영 군사 상호 협정서 체결). 이들은 인도 캘커타에서 특수공작전과 대적선전방송과 관련된 훈련을 받고 1944년 2월부터 그와 관련된 활동을 펼쳤다.
- 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인 우한의 한커우[한구]**에서 조직된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다(1938.10.10)(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의 성도(省都)이다(중국어 명칭임). 그리고 우한(無漢)은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1949년에 합쳐짐).

37 - 형평 운동

37.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 ②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③ 대한 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 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④

'이것은 (가)을/를 주도한 단체의 제7회 전국대회 포스터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모히라! 자유평등의 기치하에'라는 문구가 있으며, 경성 천도교 기념관에서 개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가)은/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本良)이라는 구호 아래 전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운동'은 형평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형평 운동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였다. 형평 운동을 이끈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1924.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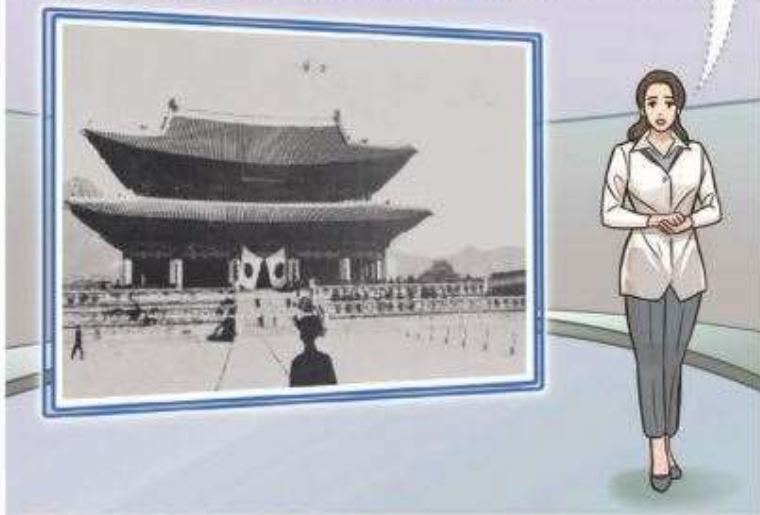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된 운동은 국채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 ②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준 운동은 1919년의 3·1 운동이다.
- ③ 대한 자강회는 국민 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 아래 서울에서 조직된 애국 계몽 단체이다(1906.4). 1905년 5월 조직된 헌정 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해산되었다(1907.8).
- ⑤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이 발표된 것은 1898년 9월의 일이다(여성 운동).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 단체인 찬양회(贊襄會)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단체는 사실 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조직된 것이다. 찬양회는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다.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이 되었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38 - 191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38.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이 사진은 조선 물산 공진회가 열렸던 당시 일장기가 내걸린 근정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그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진회장 조성 과정에서 경복궁의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



- ①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 ② 경성 제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
- ③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 ④ 원산 총파업에 연대 지원금을 보내는 외국 노동자
- ⑤ 나운규가 감독한 아리랑의 첫 상영을 준비하는 단성사 직원

정답> ③

'이 사진은 조선 물산 공진회가 열렸던 당시 일장기가 내걸린 근정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그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진회장 조성 과정에서 경복궁의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물산 공진회가 경복궁에서 열린 것은 1915년 9월에서 10월까지이다(1915.9.11~10.30).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시기'는 1910년대에 해당한다.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즉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 ②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 ④ 원산 총파업이 시작된 것은 1929년 1월이다(~4월까지 진행).
- ⑤ 나운규(1902~1937)가 감독한 (무성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첫 상영된 것은 1926년 10월의 일이다(1926.10.1).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상영되었다.

39 - 조선어 학회

39.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 ②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 ⑤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정답> ④

'한국사 강의'라는 제목으로 '우리말을 힘써 모으다(학생들을 통해 시골말, 놀이말, 속담 등 수집)', '최현배, 이극로 등 다수의 회원이 검거되다(사전 편찬 활동 등을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재개하다(서울역 창고에서 일제에 압수되었던 원고 발견)'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단체는 조선어 학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어 학회는 1933년 10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또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이듬해인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참고로 조선어 학회는 1931년 11월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①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이 간행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8월의 일이다(1898.8.10). 주된 독자층이 하층민과 부녀자들이었다.
- ②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한 단체는 신민회이다. 신민회는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서울, 평양, 대구에서) 태극서관을 운영한 바 있다(1908.5).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한 단체이다(1907.4~1911.9).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신한 청년단 [신한 청년당]이다(1918.8). 당시 우사 김규식(1881~1950)이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1919.5).
- ⑤ 국문 연구소를 두어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단체는 대한제국의 학부이다(1907.7). 한글학자 한헌샘 주시경(1876~1914)이 국문 연구소의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문법을 정리하였다.

40 - 백범 김구와 몽양 여운형

40.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독립과 통일 정부 수립을 열망한 인물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몰: 1876년~1949년 • 호: 백범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역임 • 남북 협상 참여 • 서울 경교장에서 피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몰: 1886년~1947년 • 호: 몽양 • 신한 청년당 결성 • 좌우 합작 위원회 조직 • 서울 혜화동에서 피살

— <보기> —

ㄱ. (가) -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ㄴ. (가) -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ㄷ. (나)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
 ㄹ. (나) -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이끌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독립과 통일 정부 수립을 열망한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가), (나) 인물의 사진과 약력이 나와 있다. (가)는 생몰 연도가 '1876년~1949년'이고 호는 '백범'이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을 역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어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서울 경교장에서 피살'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의 인물은 백범 김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의 생몰 연도는 '1886년~1947년'이고 호는 '몽양'이며, '신한 청년당을 결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어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서울 혜화동에서 피살'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인물은 몽양 여운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ㄱ. 백범 김구는 중국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1931.10). 옳은 설명이다.

ㄴ.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중국 난징 교외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한 인물은 약산 김원봉(1898~1958)이다(1932.10).

ㄷ. 몽양 여운형은 1945년 8.15 광복 직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위원장 몽양 여운형, 부위원장 민세 안재홍). 옳은 설명이다.

ㄹ.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이끈 인물은 이승만(1875~1965)이다(1945.10.23).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설명은, 'ㄱ과 ㄷ'이다.

41 - 제헌 국회

41. 밑줄 그은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 ②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 ③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 ④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정답> ③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른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국회'는 1948년 5·10 총선거로 같은 해 5월 31일 개원한 제헌 국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헌 국회 의원들은 임기가 국회 개원일로부터 2년이었기 때문에(제헌 헌법 제102조)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된 것은 제3차 개헌안에 의해 제2공화국(장면 정부)이 성립되었을 때의 일이다(1960.8.12-1961.5.16).

오답 해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9월의 일이다(1948.9.22).

② 제헌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하였다(제53조). 이것은 의원 내각제의 총리 선출과 같은 형식이어서 제헌 헌법은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 책임제적 요소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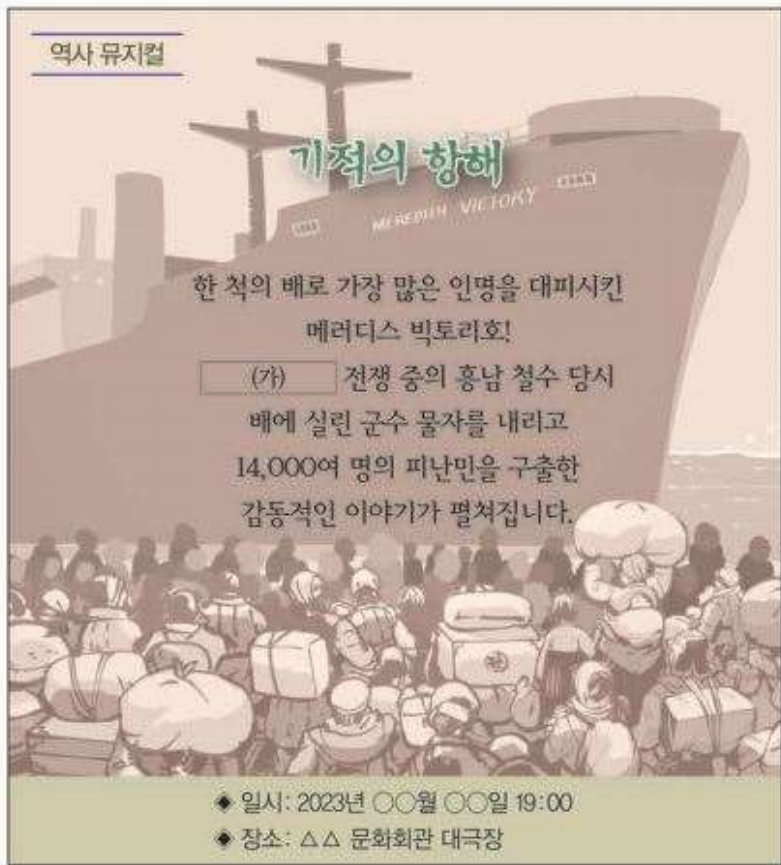
④ 제헌 국회는 제주(도) 4·3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제주도)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제헌 국회 구성: 전체 의석 200석 중에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하고 198개구에서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이듬해에 치러졌다.

⑤ 귀속 재산 처리법이 제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12월의 일이다(1949.12.19). 귀속 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참고로 '귀속 재산'이란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소유의 재산(농지, 주택, 기업 등)을 일컫는 말이다.

42 - 6·25 전쟁

42. (가)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국민 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 ② 원조 물자 배급을 기다리는 시민
- ③ 지가 증권을 싼값에 매각하는 지주
- ④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반공 포로
- 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정답> ⑤

'기적의 항해'라는 제목 아래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대피시킨 메러디스 빅토리호! (가) 전쟁 중의 흥남 철수 당시 배에 실린 군수 물자를 내리고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전쟁'은 6·25 전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의해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3일까지의 일이다.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47년 5월 21일의 일이다(~10월 18일).

오답 해설>

① 국민 방위군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50년 12월 16일이고,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만 17세에서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으로 조직되었는데 이후 1951년 1월 1·4 후퇴 이후 국민 방위군 사건*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 사건*이 폭로된 것은 1951년 1월 15일(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같은 해 4월 국회에서 국민 방위군의 해체가 결의되었다(1951.4.30).

*국민 방위군 사건: 6·25 전쟁 1·4 후퇴 당시 국민 방위군의 일부 고급 장교들의 부정부패에 의해 약 9만 명의 장정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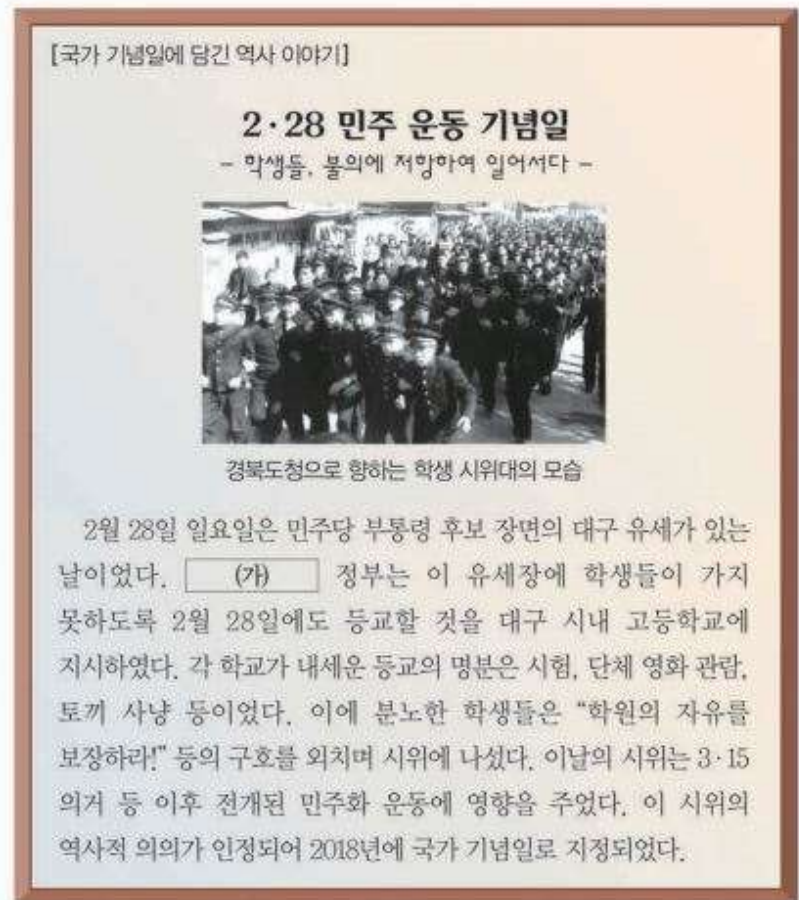
② 미군정기 때와 마찬가지로 신생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구호 중심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1948.12.10. 참고로 이 협정은 1961년 2월 8일의 한미 경제 원조 협정으로 대체됨). 그리고 6·25 전쟁 발발 직후에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인 구호의 권한을 갖고 구호 원조 활동을 하였다(한국 민간 구호 계획(Civil Relief in Korea, CRIK)). 특히 1951년 10월에는 미 의회가 75억 가량의 원조(군사 원조 및 경제 원조)를 승인하였다(미 공법 165호, 즉 상호안전보장법 제정). 미국의 원조는 이후 성격을 다소 달리하면서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③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10일 공포된 농지 개혁법으로 지가 증권을 받은 지주들 대다수가 전쟁 중의 경제난과 무엇보다 치명적인 전시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지가 증권을 싼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지주 몰락).

④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포함한 전국의 포로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석방된 것은 1953년 6월의 일이다(1953.6.18.).

43 -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

43.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 ②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였다.
- ③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 ④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받았다.
- ⑤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정답> ⑤

'2·28 민주 운동 기념일(학생들, 불의에 저항하여 일어서다)'는 제목 아래 '2월 28일 일요일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 정부는 이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2월 28일에도 등교할 것을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지시하였다. 각 학교가 내세운 등교의 명분은 시험, 단체 영화 관람, 토끼 사냥 등이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날의 시위는 3·15 의거 등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위의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어 2018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정부'는 이승만 정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60년의 '4·19 혁명').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1958년 1월의 일이다(1958.1.13).

오답 해설>

① 프로 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3월의 일이다(1982.3.27). 한국 야구 위원회(KBO)가 만들어진 것은 1981년 말이다.

*프로 야구 6개 구단: OB베어스,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삼미 슈퍼스타즈. 이후 1986년에 빙그레 이글스가 출범하면서 7개 팀으로 늘어났다.

②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8월의 일이다(1979.8.9~11).

③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가 설치된 것은 전두환 정부 수립 직전인 1980년 5월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하였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24쪽 [47-48] 자료 아래에 추가 해설 있음

44 - 3선 개헌과 유신 헌법 공포 사이의 사실

44. (가), (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4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나)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①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 ②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 ③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 ④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정답> ④

(가)의 제1조에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62조에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와 제69조에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 헌법'은 제6차 개헌인 이른바 '3선 개헌'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69년 10월 21일 공포).

이어 (나)의 제1조에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39조에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7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9조에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나) 헌법'은 제7차 개헌인 이른바 '유신 헌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72년 12월 27일 공포).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1972년 7월의 일이다.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끝에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의 일이다(1995.6.27,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
- ②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
- ③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것은 1961년의 5월의 일이다.
- 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

45 -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

45. 다음 뉴스의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②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③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 ⑤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답> ①

'오늘 오후 2시경 서울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의 시위 도중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 씨는,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있었던 전태일(1948~1970)의 분신 항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당시 전태일은 22세로 평화시장에서 피복 공장의 재단사로, 근로 기준법의 준수를 정부에 촉구하였다.

(전남)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된 것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1976.11~1978.5). 일명 '함평 고구마 사건'으로, 함평군 농민들이 농협과 정부 당국을 상대로 고구마 전량 구매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투쟁한 사건이다.

오답 해설>

- ②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6~1988).
- ③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의 일이다.
- ④ 우리나라가 (29번째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회원국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김영삼 정부 시기, 1993.2-1998.2).
- ⑤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7월의 일이다(1987.7.30).

46 -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46.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으로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그 가치가 높다.

(가)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옷 주름의 형태 등을 통해 고려 시대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불상으로 우리나라 소조 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 그 가치가 높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옷 주름의 형태 등을 통해 고려 시대 불상임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신라 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 시대의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2.78m, 광배 높이 3.8m이다.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국보 제45호).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 서방 정토에 있는 부처이다. 대승 불교 정토교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로, 수행 중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大願)을 품고 성불하여 극락에서 교화하고 있으며, 이 부처를 염하면 죽은 뒤에 극락에 간다고 전해진다.

오답 해설>

① 신라의 경주 석굴암 본존불이다(국보 제24호). 신라 경덕왕 10년(751) 불국사가 창건될 시기에 같이 조성되었다. 석굴암은 경북 경주의 토함산 정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 사찰로, 당시 신라인의 신앙과 염원, 뛰어난 건축미, 성숙한 조각 기법 등을 보여준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② 고려 후기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다(조선 초 제작).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걸쳤으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채, 왼손은 왼쪽 다리 뒤로 바닥을 짚고 있는 바 이러한 자세를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세라는 의미로 운왕좌(輪王坐)라고 한다.

③ 고려 초기의 불상인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이다(보물 제332호). 일명 '광주 춘궁리 철불'이라고도 한다.

④ 부처의 머리에 3면이 둥근 산 모양의 보관(寶冠), 즉 삼산관(三山冠)을 쓴,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삼국 시대 말인 6~7세기 유행). 참고로 부처가 복잡한 보관을 쓴 국보 제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있다. 또 일본 교토 고류지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현재 일본의 국보 제1호이다(7세기경).

[47~48]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적을 피해 성에 와 있던 한 승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다. 국가에서 그 전공을 칭찬하여 상장군 벼슬을 주었다. 승려가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말하기를, "전투할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공 없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라고 하고,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나) [우리 부대가] 대군(大軍)과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 보장왕이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북남·덕남 및 대신 등 20여만 명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야찬 조주는 영공을 따라 돌아갔다.

(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적병이 두 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 왔지만 정봉수는 홀로 고립된 성을 지키면서 충성과 용맹을 더욱 떨쳤습니다.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를 더 모집하여 육로로 혹은 배편으로 달려가서 기세(氣勢)를 돕게 하소서. 용골산성이 비록 포위에서 풀렸으나 이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라) 부사 송상현은 왜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과 군사 그리고 이웃 고을의 군사를 모두 불러 모아 성에 들어가 지켰다. …… 성이 포위당하자 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 전투를 독려했으나 한나절 만에 성이 함락되었다. 상현은 갑옷 위에 조복(朝服)*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 적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상현이 발로 걸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

*조복(朝服):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입던 예복

<43번 오답 해설>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제시된 자료의 '삼청 5호 계획'의 이름 하에 진행되었다. 명분은 폭력범과 사회 풍토 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행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경찰, 경찰서, 지역 정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았다(A급 3,252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 다시 2주 교육 후 훈계 방면, D급 1만 7,771명은 경찰에서 훈계 방면).

④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줄여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4년 5월의 일이다(제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발생).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이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정하여 내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총 23명을 기소하였는데, 1974년 9월에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 공판에서 서도원, 김용원, 이수병, 우흥선, 송상진, 여정남, 하재완, 도예종 8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듬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4월 9일 새벽에 이들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47 - 각 시대별 전투

47. (가)~(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다) - (가) - (라)
- ⑤ (다) - (라) - (나) - (가)

정답> ③

(가)에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적을 피해 성에 와 있던 한 승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다. 국가에서 그 전공을 칭찬하여 상장군 벼슬을 주었다. 승려가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말하기를, 전투할 때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공 없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라고 하고,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살리타이'와 '처인성', '한 승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였다'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고려 시대 몽골군의 제2차 침입 때 있었던 처인성 전투[처인부곡의 항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1232, 고려 고종 19).

(나)에는 '[우리 부대가] 대군(大軍)과 연합하여 평양을 포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보장왕이 먼저 연남산 등을 보내 영공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보장왕과 왕자 복남·덕남 및 대신 등 20여만 명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각간 김인문과 대아찬 조주는 영공을 따라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장왕'과 '연남산', '김인문' 등의 인물명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신라와 당의 고구려 정벌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668, 신라 문무왕 8). 참고로 자료 속 영공(英公)은 당 고종에 의해 랴오둥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되어 신라군과 연합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 당의 장수 이적(李勣)(?~669)을 가리킨다.

(다)에는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적병이 두 차례나 용골산성을 공격해왔지만 정봉수는 홀로 고립된 성을 지키면서 충성과 용맹을 더욱 떨쳤습니다.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를 더 모집하여 육로로 혹은 배편으로 달려가서 기세(氣勢)를 돕게 하소서. 용골산성이 비록 포위에서 풀렸으나 이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봉수'와 '용골산성'이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조선 시대 후금[청]이 처음 침략한 정묘호란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1627, 인조 5). 참고로 비국은 비변사를 가리키며, 정봉수(1572~1645)가 항전한 용골산성은 평안북도의 염주군과 피현군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라)에는 '부사 송상현은 왜적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주민과 군사 그리고 이웃 고을의 군사를 모두 불러 모아 성에 들어가 지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성이 포위당하자 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 전투를 독려하였으나 한나절 만에 성이 함락되었다. 상현은 갑옷 위에 조복(朝服)*을 입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 적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상현이 발로 걷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부사 송상현'이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있었던 동래성 전투에 대한 것임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5.24~25(양력)/4.14~15(음력)].

*조복(朝服):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 입던 예복

이상의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면, '(나)-(가)-(라)-(다)'가 된다.

48 - 부산의 역사적 사실

48. (라)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내상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②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 ③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가 봉기하였다.
- ④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 ⑤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작 쟁의가 일어났다.

정답> ①

(라)의 동래성 전투가 벌어진 동래성은 지금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에 위치한 성이다.

내상[萊商]은 조선 후기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인 동래를 거점으로 상업에 종사한 상인 집단[대외 무역상, 거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내상이 무역 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옳다.

오답 해설>

②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진 지역은 금마저로 지금의 전북 익산에 해당한다(674, 신라 문무왕 14). 보덕국은 신문왕 3년인 683년까지 존속하였다.

③ (세도 정권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1771~1811)가 봉기한 곳은 평안도 지역이다(1811.12~1812.4).

④ 만적(?~1198)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한 지역은 고려의 도읍인 개경[개성]이다(1198, 고려 신종 원년).

⑤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소작 쟁의가 일어난 곳은 전남 신안군에 속한 암태도이다(1923.8)(암태도 소작 쟁의). 암태도 농민들은 1년 동안 소작 쟁의를 벌인 끝에 결국 승리하였다.

49 - 6월 민주 항쟁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 ③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 ④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과 호헌 조치를 규탄하는 국민 대회 당시의 모습이야. 정부의 원천 봉쇄 방침에도 각 지역에서 열렸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에는 '이 대회를 주최한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는 4·13 호헌 조치가 무효라고 선언하였지.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더욱 거세졌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6월 민주 항쟁 결과 당시 노태우 여당(민주정의당) 대표(차기 대선 후보)에 의한 '6·29 민주화 선언'이 나왔으며 이를 통해 같은 해 10월 여야 합의에 따른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이루어졌다(1987년 10월 29일 공포).

오답 해설>

- ①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 ③ 야당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민주화 운동은 1979년의 10월의 부마 민주 항쟁이다(1979.10.16~20).
- ④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민주화 운동은 1980년의 5·18 민주화 운동이다(1980.5.18~27)(2011년 세계 기록 유산 등재).
- ⑤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4월 26일 하야 표명하고 27일 사임서 제출 후 경무대 떠남).

<50번 오답 해설>

- ③ 10·4 남북 정상 선언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2007.10.4). 제2차 남북 정상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약칭 '2007 남북 정상 선언문')이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최초로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1~22). 당시 50명 규모였으며,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50 -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50.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

셋째,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 ①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 ③ 10·4 남북 정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④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라는 부분에서 주어진 자료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7월에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 이른바 '7·7 선언'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88.7.7). 본 선언에는 남북 동포의 상호 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 교역과 문호 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선언을 계기로 노태우 정부는 이후 공산권과의 국교 수립 및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한이 국제 연합(UN)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노태우 정부 시기: 1988년 2월~1993년 2월

오답 해설>

-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 ②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8월의 일이다. 그리하여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 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 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

- 이 상 -